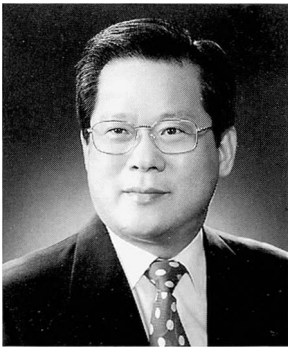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



辛 基 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 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그 나라 특유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 하에서 정착하며 우리의 경우에도 반세기에 걸친 한국사회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오늘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도시화의 진전, 소득수준의 향상, 과학기술의 진보, 정보사회화, 가치관의 다양화, 생활의식의 변화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숨가쁘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들은 이미 선진제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바이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변화의 내용보다도 그 속도가 엄청나다는데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세계화의 거센 물결이 덮치고 있다. 세계화라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제 보건의료도 정책적 방향선회를 하여야 할 때이다.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또는 제도들이 방치된 채 세계화를 통한 21세기의 응비는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속의 현 위치를 보면 세계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보건의료 부문도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민보건의 미래를 통찰함으로써 새로운 진로와 목표 그리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는 그 중심가치로 삶의 질이 자리잡을 것이며 국민의 의식도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데 머물지 않고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게 되어 이에 대응한 사회적인 인간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앞으로의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미래에 동참하기 위한 보건의료 부문의 선진화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

한 보건의료정책의 모색

지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진제국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과제의 접근방법이 사회적 합리성에 기초한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계획화, 조직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답습하여 전국 획일적인 행정 내지 전문가 측으로부터의 상의하달식 일방통행이었으므로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개발 성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보다 단순히 부의 축적에 삶의 목표를 두어왔기 때문에 현대에 이룰수록 보건복지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주체적 참가, 전문가의 지도, 그리고 공적 책임 하에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는 행정을 기본요소로 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주체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복지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문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예방조치적인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지역간, 계층간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이 균등하게 되고 치료뿐 아니라 예방서비스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질병과 진료에만 쏠려있던 관심을 적극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에 돌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배로 필요할 때이다.